



전교인 여름 수양회 초대이 글

담임목사 이영길

새로이 시작하십시오.

어느 어린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우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는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리 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어린이가 소리칩니다.
“이제 부터는 알수 있어요.”
어린이는 집에까지 무사히 갈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칼바르트가 그토록 유명한 학자가 된 이유가 여기있다고 봅니다.

그는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학자였습니다.

위대한 학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길을 걷길 원합니다.

물론 칼바르트처럼 위대한 학자는 아닐지라도...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돌아 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위대한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닐까요?

금번 전희원 목사님을 모시고 여름 수양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잊었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돌아 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가장 바른 길일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일줄 압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 말씀 안에 젖으십시오. 새로이 시작하십시오.

8월호 차례

- 수양회 초대이 글
“새로이 시작하십시오”
- 니카라과아 단기 선교 보고
- 당외보고
- ECC 건축위원회 보고
- ECC 음악위원회
- 부목사 정병위원회
- 건축 모금위원회 보고
- 건축 기금모금 바자회 보고
- 여름성경학교(VBS)
- Shema의 밤
- 쉼마 찬양Team
- 전교인 계속 대외
- 유아 세례간증문
“사랑하는 윤찬에게”
- 동북부 여성 대외 모임
- 선교기금 골프대회
- 교우 동경
- 새교우 환영반 소식
- 알림
- KCB 갤러리

2007년 여름 수양회

주제: 크리스찬으로 살기

-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s) -

장소: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2007. 8.17 오후 5시 ~ 2007. 8.19 오후 3시

Nicaragua 단기 선교

애의 선교 위원회

온 교우님들의 기도 가운데 떠난 니카라과 단기 선교단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니카라과 선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단기선교단은 첫날 도착하여 마짜야 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치과팀이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치료하였습니다. 둘째날은 8교회가 모여 연합 세례식을 바닷가에서 70여명의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셋째날은

전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마나구아 지역에 가서 의료, 교육, 미용, 치과 선교를 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는 정기적으로 이동홍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산베니또, 하나님의 은사 교회, 새생명 교회, 은혜교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단기 선교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여정을 기억하며

이현주 교우

주님의 은혜로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된 21명의 팀원들이 선교를 놓고 기도와 모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정을 잘 마치게 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교의 큰 그림에서부터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헤아려 볼 때 정교한 그물을 짜듯이,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지휘하듯이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설계하셨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 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단기선교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한가지와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붙어서 놓아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날 저녁 그런 아이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차마 떨어지 않는 발걸음으로 속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니카라과의 상위 5%의 사람들의 소득은 굉장히 높지만, 빈부 격차가 심하고 85%이상의 인구가 상위 5%의 재벌 밑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른들의 삶의 무게 때문에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결핍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니카라과를 떠나는 날 공항에서는 그림을 여러 점 판매하고 있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니카라과 유명 화가들의 그림인 것 같았습니다. 그 중, 아이의 초상을 그린 그림에는 외롭고 힘들어하면서도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고 열망이 있는 눈빛이 제가 만난 아이들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니카라과 한 지역 교회의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한 곳에 숙소를 정하고 활동은 매일 다른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많은 아이들과 함께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아이들의 행동과 눈빛, 몸짓들은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도 안통하는 저에게 아름다운 들꽃을 꺾어다 주고, 곁에 꼭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감과 충만함으로 가득 감싸주신 순간도 있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아름다운 반원 무지개를 보았을 때입니다. 너무도 크고 빛나는 무지개는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했고. 노아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와 같아 보였습니다. **(page 14 로 계속)**



전교인 여름 수양회 소개

아름다운 뉴 햄프셔의 호숫가를 옆에 끼고 숲으로 우거진 필그림 파인 수양관에서 올해도 여름 수양회를 가집니다. 일년에 한번 가지는 전교인들의 어우러진 만남의 장인 이 수양회에 많은 교우님들이 오셔서 주 안에서 귀한 사귄의 시간과 말씀으로 충전되는 은혜의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해 강사로는 전희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전목사님은 오래전 우리 교회를 전도사로 섬기셨던 시각 장애자이신 목사님이십니다. 현재는 코넬(Cornell) 대학 교목으로 계시면서 코넬 한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전 목사님께서서는 여러번에 걸쳐 좋은 말씀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땅
(Ur of the Chaldeans, Haran, Canaa)”
- “은혜로, 오직 은혜로
(By Grace, Only By Grace)”
- “좋은 크리스찬은 그냥 되나?
(Becoming A Good Christian)”
- “행간 읽기 (Reading Between The Lines)”
- “어찌 이런 일이 (The Riddle of Inequality)”
- “너는 최선을 다했는가?
(Did You Do Your Best?)”

방송실 Upgrade

예배위원회의

예배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송시설의 노후화와 교회성장에 따른 수요증가, 새로 업그레이드 된 교회 웹사이트에 설교 video 방송준비, 본당과 친교실의 camera 및 projector system의 신설 및 개선, 인터넷 및 증가하는 multimedia 수요에 대비해 지난 4월 부터 방송실 요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기자재로, Main Mixer, 새 Projector, 새 Camera 및 Controller 본당의 대형 Screen Monitors, Video Mixer, A/V computer, DVD Recorder, Distribution Amplifier 등을 구입했고, 모든 시설물을 Rack System에, 기재등을 새 Table에 새로 정리했습니다. 30년 묵은 Cable 등

은 정리하고, 새로운 Multi-Media/Internet Cabling을 끝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시설에 여러 가지 예로사항이 있었으나, 방송요원들의 희생적 봉사로서 모든것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작년 9월부터 외부의 용역으로 이를 추진했으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Consultant 한분을 고용, 자체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본교회가 원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끝낼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시간에 본당과 친교실을 연결시킬수 있고, 설교녹음은 동시에 Computer에 직접하게 되며, 본당에서 Projector를 쉽게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위해 김상기, 이봉욱, 이재혁, 이정일, 정일진, 하대준 집사님들과 이봉열 교우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필그림 원고 모집

홍보위원회의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더 테레사)
홍보위원회에서는 올해 필그림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기도로 꾸미려 합니다. 신앙 여정을 함께 하는 우리 마음의 기도를 한울 한울 엮어서 필그림 기도 모음집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다양한 기도문을 기다립니다.

위한 기도,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한 기도, 신앙의 성장을 위한 기도, 아픔과 고통,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 세계의 문제들을 위한 기도 등 다양한 주제의 여러분의 기도문을 신고자 합니다. 원고 마감일은 9월 16일 (주일)이며, 원고 및 제출 문의는 홍보위원회(배한원 집사- Email: hanwbae@yahoo.com, Tel: 508.533.3755)로 연락바랍니다.

개인의 간절한 소원, 치유, 교회와 사회, 세계를

단기 선교여정을 기억하며 (page 2 에서 계속)

저는 이것을 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남편과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확증(confirm)이라고 여겨 될 듯이 기뻐고, 또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별과 연령, 각자의 배경이 다른 팀원들이 모여 혹 불편한 순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고 기쁨과 감사로 모든 여정을 같이 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 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단기선교 팀 안팎으로 수많은 섬김이 손길이 있었고, 선교라는 주님의 사명을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니카라과로 초대해 주신 이동홍 목사님과 사모님은 선교의 일정을 정교히 조정하셔서 팀원들이 열심히 일하여도 지치거나 지나치게 힘이 빠지지 않게 하였고, 사모님의 푸짐한 음식과 요리 솜씨는 단기 선교의 활동이 힘들기 보다는 즐거움과 교제가 넘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일정에 함께 하시면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없이 순조로운 단기 선교 일정 속에 마지막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이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니카라과를 떠나오던 날 비행기를 환송하는 Miami 공항에서 팀원들의 짐이 늦게 도착하는 일 등으로 모두가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고, 우리들 중 16명은 다음 비행기에, 그리고 남은 다섯명은 다음날 11시 50분 비행기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일 설교를 맡으신 Primera

Iglesia 교회의 Pena 목사님과, 보스톤 한인교회의 전도사님 두분은 밤비행기를 타게 된 16명에 속하여 주일을 성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남은 다섯 명에 속하게 된 저로서는 예상 외로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남은 분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시간이 짧아 니카라과 팀에 속하신 한 분 한분과 생각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점을 아쉬워 하였던 저는 항공사측에서 약간의 승강이 끝에 제공하여 준 호텔에서 남은 분들과 담소를 나누었고 다음날인 주일에는 강장로님의 지도 하에 짧은 시간이나마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보스톤행 비행기에서는 호텔에서 편히 쉰 덕분에 니카라과에서의 일정을 기쁨과 감사로 돌아보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중략)

저는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자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휘아래 놀랍고도 짜임새 있게 이루졌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편과 함께함이 행복했습니다. 같은 목표를 지니며 시간을 공유하고, 또, 보스톤의 일상에서 벗어나 더 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남편은 저에게 껍도 잘 해 주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단기선교의 여정을 기억합니다.

(원문과 더 많은 사진들을 보시려면 교회 웹사이트 www.kcboston.org의 선교게시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교우 환영반

교인위원회

새 교우 환영반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가족들을 초대하여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3주 기간 동안 서로를 알 수 있는 소개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6-7월달 새교우 환영반을 마치신 교우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진홍/김경태 (중앙 3구역), 김돈수/홍성주 (남서 1구역), 정봉근/함수연 (부부청년부)
김병수/임소영 (부부청년부), 정하균/곽서영 (중앙 3구역)

새롭게 보스톤 한인교회 새가족이 되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새 가족들에게 김정선/조순재 장로댁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정다운 사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당회 보고:

김문소 장로

1. BU 신학박사 과정에 있는 허신영목사가 배목 사님의 후임으로 청년 2부 담당 사역자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2. 행정 전도사로 10여년 동안 본교회에서 행정전도

사로 수고하신 윤경문 전도사께서 행정 지정 목사(Administrative Designate Pastor)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와 보스톤 노회의 승인을 받아 9월 9일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 전체 교인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CC 건축위원회 보고:

안승의 장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본 교회의 ECC 건축 project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ECC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건축 설계사와 건축 업자와의 모임들을 정규적 또는 비 정규적으로 여러 차례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 진척되어 온 상황들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로 최종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재검토,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빠른 시일내에(8월 말경까지는) 최종 작업을 끝내고 Kang Suk Construction Company 와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첫째, 건축회사 입찰 절차(bidding process)를 모두 마쳤고, 한 건축 회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회사의 선정 절차에서는 3 회사의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Hunter Construction Company에서는 \$8.04 million, G. Green Construction Company에서는 \$6.36 million, Kang Suk (cornerstone) Construction에서는 \$3.20 million의 bidding이 들어왔으며, 이에 본 교회는 Kang Suk Construction Company를 최종 건축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융자위원회를 통하여 PILP(Presbyterian Investment and Loan Program)로 부터 \$1.6 millions의 construction loan을 최종적으로 허락 받았고, 필요 조건으로 주어진 Professional Construction (Project) Manager를 채용하기로 하고,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8월초 본교회 ECC 건축위원회, Kang Suk Company 그리고 Brian Healy Architects 의 대표들 모여 3자 회담을 갖고, ECC건축비의 경감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약 \$2.6 million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즉, 이 3자 회담에서, 본래의 ECC건축 설계 자체는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에서, Kang Suk Construction Company가 제의해온 건축 자재 및 건축 방식 등의 재검토와 재 조정을 통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였고, 이를 통해 약 65만불 정도의 건축 공사비를 감소하는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본 교회, 건축회사 그리고 건축 설계 회사의 3자 회담에서 건축비 경감을 위해 모색하는 회의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일들이 서로간의 협조와 이해 하에 잘 진행되어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당초에 계획했던 ECC 건축 예산에 맞도록 일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축회사와의 계약 체결, 건축 허가서를 Brookline 타운 홀에서 받는 일 등이 남아 있으며, 곧 건축 시작을 위해 땅을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공 예배는 9월초에 예정하고 있고, 건축 기간은 1년 혹은 15개월(겨울 날씨에 따라 변수가 있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온 교우님들께서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증축을 하기위하여 약 160 만불을 빌려야 했습니다. 작년 10 월에 총회 산하의 용자단체인 Presbyterian Investment and Loan Program Inc. (PILP) 에서 근무하시는 최미길 목사님을 통하여 올 1월에 용자신청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4월달에 용자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절차상 건축 업자와의 문제로 용자 자체가 불가능 하게 보일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미길 목사님의 적극적인 설득력 으로 최종 회의의 때 Board of Directors 들이 과반수 이상 으로 저희 교회 에 용자를 해주기로 7 월 21 일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이 용자액은 우리가 용자액 수의 35% 를 저금하면 이자율이 0.25% 저하하게 되어있습니다. 50% 저

축은 0.5%, 75% 저축 은 0.75% 또 100% 는 1.0% 의 이자를 교회 이익금으로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37%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PILP 에 저축하여 주셨습니다. 이 중에 70% 는 저희 교회 소속이 아닌 분들이 저축하여 주신 것이 더 뜻이 있다 생각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보스톤 노회와 미국 장로님들이 저희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축 하신 것은 그 동안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성도님들의 열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더 모든 교인들의 기도와 참여로 ECC 건물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날을 그려 봅니다.

<ECC 모금위원회 보고>

이제 우리 건축 합니다.

모금 위원회 안태준 집사

지루하게 긴 터널을 지나고 밝은 햇살을 봄과도 같은 우리의 건축 이야기는 이제 첫 삽을 뜨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합당한 건축자를 선정케 해 주십사고 기도를 드려주시 수 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우리의 budget 에 맞는 건축자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이라 믿습니다. 힘들것만 같았던 loan 문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리없이 해결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젠 설계자와 건축 시공자 간의 설계에 대한 마지막 조율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건축을 해가는 동안 좁아진 공간을 서로 이해하며 나눠써야 하는 문제, Brookline 시와 아무 문제 없이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건축 허가서를 따는 문제, 그리고 아직 모자라는 나머지 건축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 등,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아직도 해결 되어져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일 들은 더욱 더 힘들어 보인다고 꾸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껏 놀랍게 이루어진 많은 일 들을 보면서, 분명 뒤

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끼며 기도해 나아 갈때, 우리의 건축 문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며 분명 완공의 역사를 맞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건축 이야기를 엮어 나가기 위해 선 쉽 없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며 또한 자기 몫의 멩을 지고자 하는 헌신의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죽을지 모를 오지로 선교를 떠난 것도, 나의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도, 그리고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코자 간절히 기도함도, 십자가에서 죽기 까지 인류를 사랑하심도, 다 자기 각자에게 맡겨진 그 몫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이 아니었던가요? 자, 우리 조금만 힘을 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다 자기 뒤통에 총실들 했던 보스턴 한인교회의 일원들 이었다고 기억됨을 받는 영광된 그날을 위하여.....

ECC 건축 헌금 통계
(2007년 6월22일 현재)

1. 총 자산 현황및 3차 모금후 부족 금액 추정

보유 현금	815,404
총건축비	3,300,000
1.2차 Pledge 잔액	62,579
Loan Amount	1,600,000

3차 Pledge 잔액	91,115
총자산	(1,190,424)
선지급 건축비	221,326
3차 추가 모금 잔액	(285,304)
총 자산	1,190,424
3차 모금 완료후	
부족 금액	224,272

2. 3차 모금 현황 금액

총 모금 목표액	600,000
납입 현금액	223,581
약정 잔액	91,115
3차 총 모금액	314,696
추가 모금 잔액	285,304

ECC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

김준구 집사

먼저 지금까지 ECC 건축기금 모금을 위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님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14, 15일 이틀간에 걸친 바자에서 8천불 가까운 기금이 모였습니다. 바자 시작전에는 주님 일이시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는 배짱 하나였지만 바자일이 다가오면서 기증된 물품이 적어서 걱정만 되고 대책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자 바로 전날에 애지중지 수집해 온 골프채 세트와 그릇을 주신 집사님, 회갑 선물로 받아서 그동안 아껴오시던 예수님 그림을 기증해 주신 장로님, 새 물건만 받는다고 하니깐 일부러 새 물품을 구입해서 기증해 주신 성도님,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흔쾌히 갖다주시고 잘 팔린다고 더 갖다주신 집사님, 맥주회사 마크가 찍혀있어 교회에 기증해도 되는지 물으시며 드럼 세트, 골프공, 바베큐 그릴등을 한 차 가득히 싣고 오신 성도님, 중고TV이지만 TV를 안 볼 작정이라면서 TV와 TV 받침대를 기증한 청년, 새 티셔츠를 90벌이나 기증해 주신 권사님, 집에 있는 액자와 그림을 흔쾌히 기증해 주신 장로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상기시키듯 아끼시던 보석을 기증해 주신 집사님,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려고 미리 구입해 놓았던 스피커를 보내주신 집사님들이 계셔서 성공적인 바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바자기간 내내 순번을 돌아가며 물품 판매와 뒷 정리를 도와 주시고 맛있는 아이스크림까지 사다 먹이신 여선교회 회원들, 40여개나 팔린 황토 찜질팩에 물을 넣고 엄지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일일이 진흙을 으깨면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준 청년, 거리에서 바자를 홍보하겠다고 옷가지를 들고 거리에 나간 집사님, 맛있는 입간판을 만들어 주신 집사님, 가격표를 일일이 붙여주시고 물품을 정리해 주신 집사님들이 계셨기에 8천불이라는 되는 기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건축기금을 모금하니까 헌금하신다는 생각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입해 주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마 감동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로 건축되는 ECC 건물은 벽돌과 시멘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곳곳에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ECC 건물을 통해 이뤄지는 기독교 교육, 한국 문화 전파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올랜드 디즈니 월드 가까이 있는 Marriot resort의 two bed 콘도 이용권을 기증해 주셨는데 2008년4월 school vacation기간동안에 7일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시가는 \$2,200 정도지만 \$1,500에 바자에 내 놓았는데 구매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격은 \$1,000 이상에서 주시는 대로 받을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건축기금 모금 위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목사 청빙위원회 보고

위원장 김 성빈 장로

저희 부목사 청빙위원회에는 이선영장로님과 장양술장로님이 저와 함께 일년이 넘게 계속 일해왔습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의 목사님들을 새로히 청빙하는 작업을 위해 조직되는 위원회를 목사 청빙위원회라고 하며 영어로는 Pastor Nominating Committee (PNC)라고 부르며, 교회내의 당회라든가, 또는 공천위원회등 다른 기관으로 부터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독립을 지키며, 독자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게되고, 그 최종결과를 임시특별공동의회에 보고한후, 교인여러분들의 승인을 받게될때, 저희 청빙위원회의 임무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이번 에 저희교회가 청빙하려고 하는 부목사님의 정식 명칭이 Designated Associate Pastor이었고, 모든 “Designated Pastor”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스톤 노회가 개입하여, 청빙위원회를 도우며, 같이 일을 하게됩니다.

특히 보스톤노회의 총무이신 Wayne Parrish목사님과 보스톤노회의 Committee On Ministry의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후보자들을 만나, 면담을 한 결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윤경문전도사님이 가장 적합한 후보자이라는 결론을 보았고, 그 결과를 저희 청빙위원회에 통보해왔습니다.

그후로 저희 청빙위원회는 윤경문 전도사님과 여러 차례, 공식으로, 비공식으로도 만나며, 훌륭한 부목사님이 되시기 위한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교회의 교인수를 생각해보면, 우리 이 영길 담임목사님이 그동안 혼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서 속히 부목사님이 청빙되어서, 이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일하게 되시면, 우리 교회와 모든 교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교인 여러분들이 잘아시는대로, 우리 윤경문 전도사님은 우리교회에 오신지가 12년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 사무실에서 계속 일해오시었고, 또 여러가지 큰 Project들도 책임지고, 일해 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이런 모든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부목사님의 일을 아주 훌륭히 잘 수행해 나아 가실 것이란 것이 우리 청빙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아직 청빙위원회의 일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이번 8월중으로 모든 청빙위원회의 일을 마무리 짓고, 이영길목사님과 당회와 상의하여, 9월9일 주일 예배후에 임시 특별공동의회를 열고, 청빙작업의 최종결과를, 정식으로 교인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니카라과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

안태준 집사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3, 4회에 걸친 각종 기금 모금 Golf 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중남미에 있는 Nicaragua 로 의료, 교육, 봉사의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들을 돕기위한 Golf 대회를 시작으로 한해의 Golf 행사가 시작되는데, 올해에는 항상 대회가 열리던 Putterham (Brookline) Golf Course 에서 Braintree Municipal Golf Course (Braintree) 로 자리를 옮겨 원근 각지의 내노라 하는 38명의 프로 (골프장에선 서로 서로를 프로라 불러 줌) Golfer 들이 모여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야말로 진검승부의 기금 모금을 빙자한 Golf 대회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졸업과 함께 Arizona 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그러기에 꼭 우승을 해야만 한다는 치과 대학 졸업생 운영중, 그리고 2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새로 내게 될 치과 office 에 걸어들 Champion Trophy 를 꼭 받아 가고야 말겠다는 집님의 감상태 집사. 동계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지난 날의 명예를 다시 꼭 찾고야 말겠다는 도끼타법의 이정일 집사. 왕년에 내가 안집사 3개씩 잡아주며 골프를 했다고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집착형 골프의 이경환 집사. 시합 전날 무리한 연습으로 인해 시합 당일엔

꼭 죽을 쓴다는 방송실의 David Choi. 백발을 휘날리며 인정 사정 없이 아무 홀에서나 몽둥이 휘두르는 (9번 Wood) 방망이 타법의 조준호 장로님.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는 이누리, 저누리 Golf 대회마다 항상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온누리 교회 선수들. 어느정도 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주저함도 없이 “싱글 칩니다” 라고 즉각적인 답을 해 오신 Rhode Island 교회 선수등등, 그야말로 한치의 예측도 불허한 박빙의 승부를 보여준 Golf 대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루어진 골프대회에서, 치과대학생 운영중 선수는 +7 over par 로 화려하게 그리도 꿈에 그리던 Champion Trophy 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수여식에선 등수를 들지 못한 많은 분들까지도 추첨에 의해 꾸집한 상품들을 나눠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3800 을 Nicaragua 선교를 위한 선교 비용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비록 함께 떠나지는 못하지만, 작은 정성을 모아 그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어우러진 보람된 골프대회를 마감하며 이 대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상품과 hole donation 등으로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우동정

<출생>

남동구역 이태훈/문혜정 교우택에서 득남(제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편>

남서 2구역의 한정인 집사님 아버님이 뉴욕에서 지난주 소편 받으셨습니다.

<이사>

지 훈/박미숙 - 543 Saw Mill Brook PKWY, Newton, MA 02459

이혜승/김승호- 350 Engamore Lane#107, Nor-

wood, MA 02062 781.369.5857

김동원/김주연- 8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978.409.2443

허신영/박강희 - 76 Boylston St. #4, Chestnut Hill, MA 02467 617.645.1588

<주소록 업데이트>

* 교인위원회에서는 교인 주소록 데이터베이스와 주소록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교우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년, 초등주일 학교 여름성경학교 (VBS)

김아나 집사

올해에도 변함없이 보스톤 한인교회 지하에서는 유년부 어린이들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삼복더위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 가지 모습으로 수고해주셨습니다. Our God Is Awesome God 찬양을 하는 진지한 어린이들의 눈빛을 보신 분들은 이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초롱 초롱한 어린아이들의 눈망을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하루 일과는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일곱분의 찬양 리더분들은 각기 악기와 목소리 그리고 울동을 맞추시느라 며칠전부터 무척이나 분주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유년 1부 (2ys~5yrs) 그리고 유년 2부 (elementary k-5) 각각 4반으로 나뉘어 4군데의 post를 다니며 성경학교 공부를 합니다. 6시 반경에는 어머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저녁도 먹으며 분

주하게 교회의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마지막시간 역시 2살박이 아이부터 5학년 어린이 까지 모두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 모여 마치는 시간을 갖고 전도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또 더운 여름 돌아가는 아이들을 위한 popsicle 아이스크림이 빠질수 없죠.

전도사님을 포함 십여분의 유년부 선생님들과 Youth group volunteers 식사를 맡아 주신 어머님들 찬양팀을 도와주신 교우님들까진 약 40여분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을 위한 이 축제의 시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수고가 아이들의 삶속에 귀한 열매로 열리길... 또 교회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기도가 유년부의 힘이 되길 기도하면서...이상 2007 유년주일학교 여름 수련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룹 참여>

홍보위원회에서는 교회 각 그룹들이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최근 <3세대 게시판>, <부서별 소식통>이란 게시판이 신설되어, 교회 여러가지 행사 소식과 사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교육부서와 집사회, 여선교회, 각

구역들이 서로간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하려 합니다. 더욱 활발한 소식들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장과 구역장님들께서는 게시판 운영을 위한 ID/Password를 윤경문 전도사님 (email: kmyoonkcb@hotmail.com)께 받아가셔서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윤찬이에게. . .

김지용/이지연(김윤찬)

처음인 것 같다. 윤찬이를 향한 부모로서의 다짐과 신앙적 고백을 하기 위해 펜을 든 것이... 그리고 보면 우리 둘째에게 참 미안한 점이 많구나.

첫째 아이 성찬이때는 나름대로 첫아이에 대한 설레임과 긴장감 속에서 뱃 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일기며 걸진 때마다 받았던 초음파 사진들을 모두 모아 스크랩을 하는 것은 기본이요, 그 후로도 많은 순간들을 농철세라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는데 말이다.

남편이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으로 포스닥 과정을 밟기로 결정할 즈음에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덜컥 생겨버린 윤찬이. 사실 축복 받아야 할 임신 사실에 난 많은 고민을 했고 미국에 가서 홀로 아기를 낳아야 할 지 모른다는 막막함에 나 자신이나 주위로부터 큰 부담거리가 되었었지.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 보니 정말 한낱 인간의 근심거리일 뿐이었지, 그 속에 담긴 크나큰 주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너무 부끄럽구나. 지금 이 순간 너를 생각할 때 벅차오르는 이 감격과 기쁨을 앞으로 살면서 잊지 않도록 크게 호흡을 한번 가다듬어 볼게.

하늘나라 주님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세례식에 앞서 세상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와 아빠가 너를 위한 기도조차 소홀히 하고 지내온 점부터 회개하고 시작해야 겠구나.

흔히 얘기하길 내 부모가 나한테 하던 방식대로 내 자식에게도 은연 중에 똑같이 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찌나 그 말이 맞아 떨어지는지 자신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 어찌나 신기한지 모르겠다.

부모님의 훈육 방법 중 이런 점은 싫었다 하는 부분을 내가 내 자식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그러니 부모의 역할이 자식의 인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말해 무엇 하겠는가. 사실 이 신앙 간증문을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야 할까 고민했었는데, 결국 엄마와 아빠의 신앙 고백서요, 다짐서가 될 것 같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지 못했지만 늘 주님을 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길 바라고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되

길 빌어본다. 아빠와 엄마부터 첫 세례 때의 다짐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재정비하고 윤찬이가 신앙의 옥토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써 신령한 밑거름을 만들도록 노력할게. 언젠가 목사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절대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알아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난다. 우리도 늘 네 컷전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땀두수 있게 할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 못했던 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못했던 점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을 안겨 주셨는데, 그 감사함을 때론 잊고 살았던 점도 회개합니다.

큰 아이 성찬이, 둘째 윤찬이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또한 무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주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곧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다른 이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PCUSA 동북대회 여성 수련회를 다녀와서...

Open Unto Me: Blessing and Abundance

지난 7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2년에 한번씩 열리는 Presbyterian Women in the Synod of the Northeast Gathering (PCUSA 동북대회 여성 연합 수련회)가 Albany, NY에서 있었다. 미 동북대회에 속한 모든 PCUSA의 여성 교우들이 참석하는 수련회로 총 250여명의 교우들이 모였다. 물론 대다수는 백인 교우들이었지만, 세계 각처에서 이민과 교회를 세워 PCUSA 교단에 속한 여러 다른 민족들도 꽤 많이 참석하였기에, 인종을 초월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은혜로운 수련회였다.

미 동북 한인 대회에 속한 여성 교우들은 20여명 정도 참석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김 한나 집사, 김경애 권사, 이성혜 사모님 등 세명이 참석하였다.

첫날 오후에는 임원들의 Business Meeting이 있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찬양의 시간에 이어, 제1회 "Sisters Stand and Walk Together" (이 프로그램은 4 대륙의 7개 나라-브라질, 콩고, 가나, 한국, 나이지리아, 타이완, 미국-의 이민자교회 여성대표들이 리더쉽 구성원으로 더욱 참여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의 졸업식이 있었다. (졸업생 11명중 한인 여성도 두명 있었음)

그 후에는 은혜로운 개회 예배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한인 연합 여성 교우들이 열심히 준비한 특별 찬양으로 250여명의 참석인들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했다.



둘째날 아침에는 아픈 이들과 어려움에 처한 곳곳의 지역 등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과, 가난한 Palestine 여인들이 만든 물건들을 팔아서 그들의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일을 지난14년간 해오신 Elizabeth B. Knott (80세)의 Craft-Aid에 관한 소개와 감명깊은 간증 시간이 있었다.

또한 이번 수련회의 주 강사중의 한분이신 Dr. Jacqueline Lapsley (Princeton 신학교 교수)의 '안식일(성수주일)의 은총과 귀중함'에 대한 강좌가 있었다. 그 후에는 Workshop (Learning Circle)이 세 시간에 걸쳐서 있었는데, 10가지의 각각 다른 Program이 다양하게 있었기에, 각자가 참여하고 싶은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class를 선택하여서, 영육간에 풍성하고도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수련회는 일요일 아침까지 계속 되었으나, 우리 일행은 토요일 오후에 돌아와야 했다. 이틀간의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드리면서, 오가는 장거리 운전동안 친교를 돈독히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전교인 체육대회(7월 22일)

박진욱 집사

어느 모임이든 야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려되는 문제중 하나가 날씨이다. 비가 오지 않을까, 너무 덥지 않을까 등등. 생각할수록 우리들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인것 같다. 3년전 첫 전교인 체육대회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셨고, 작년에는 좋았던 날씨가 여자 발야구를 끝내고서는 Thunder Storm이 몰아쳤었다. 과연 금년에는 또 어떻게 될것인가 긴장을 했지만 7월 중순 임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즐거운 행사가 될수 있었다.

사실 명칭이 체육대회지만, 내용면에서는 야외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야유회의 성격이 강하다. Grill 에서 고기를 구우며, 밥을 같이 먹으며, 또 자연이 주는 상쾌함을 통해 교회 건물 안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풍요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인것 같다.

금년에는 식도락의 즐거움에 중심을 두고, 경기는 두 세 경기로 상황을 봐가며 진행하기로 했다. 식사 후 제직들이 자연스럽게 소프트 볼 구장에 모여들어 첫 게임은 소프트 볼로 결정하였다. 팀은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답게 제직들을 주축으로한 OB팀, 그리고 40세 이하의 제직, 청년, 중고등부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했는데 결국 노련한 OB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평소에 몰랐던 목사님의 운동 실력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오히려 잘 할것 같은 분은 헛방망이질을 하고, 전혀 못 할것 같은 분의 정확한 송구를 통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응원석에 있던 자매님들의 발야구 순서가 되었을 때, 예년에 비해 운동화 대신 샌들을 신고 온 자매님들이 많아서 자매님들끼리 경기를 치르기 힘든 관계로, 남,녀 성 대결 발야구로 변경해서 경기를 했다. 남자는 왼발로 공격을 하고 2 out으로 공격권을 제한하고, 반면 여자쪽은 4 out 까지 공격권을 주어 남성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고 경기를 하였다.

다행히 양쪽 팀 모두 기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 나름대로의 성 대결 경기는 즐겁게 진행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녀 성 대결의 하일라이트로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남성들의 힘 보다는 여성들의 모아진 힘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에 풍족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집사회 친선부, 구역원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노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공동체 친교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이 더욱더 피어나기를 원하며 내년에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7월 쉼의 밤

“믿음이 깊어지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김우진/배안원 집사가강

저는 31대 중순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친정에서는 지금도 4대까지 제사를 모시기에 일년에 총10번의 제사를 지냅니다. 엄마는 종갓집 며느리의 본분이라 생각하시고 말없이 그 일을 다 해내셨고, 저 역시 종갓집 손녀로 제사 음식 준비에 바빴고 때로는 힘들다며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막연히 교회가 좋았습니다. 가족중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엄마가 집사라며, 아빠가 장로라며 예배후 남아 전도사님과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 때 막연히 ‘내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면 내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교 배경으로 함께 교회 다니던 친구들과 멀어지자 혼자 교회 가는 것이 서먹해져 발길을 끊으면서도 늘 마음속에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을 읽으셨던지 주님은 이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모두 크리스찬 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의 예배와 성경공부 시간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지요.

대학교때 3대째 믿고 있는 친구로부터 “우리 엄마가 내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라는 말을 듣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 도 있음을 알았고 저 역시 제 나름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방법이라고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를 한다는 것 외에는 몰랐기에 그저 ‘저와 함께 교회를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 저 보다 믿음이 강하여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를 안고 교회를 가던 첫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 초등학생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어린 제 마음을 헤아려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옴을 느낍니다.

저에게 있어 교회 다닐 적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

로 ‘여름성경학교’ 인데 이는 아마 가장 많은 찬양과 기도와 성경을 배웠기 때문인듯 싶습니다. 그 때 불렀던 찬송가는 지금도 다 외워부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재미를 저희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저는 아이들과 ‘여름성경학교’ 에는 꼭 참여 합니다. 또한 ‘수양회’ 도 꼭 갑니다. 제게 있어 수양회는 어린 시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아니 수양회라는 곳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몰랐던, 그저 궁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수양회에 가보니 잘 몰랐던 교회분들과 알게도 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어 꼭 ‘어른들의 여름성경학교’ 라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여 저는 해마다 수양회에 갔고, 올해도 수양회에 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은 저 역시 여러분처럼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입니다. 아직은 믿음도 약하고 배움의 깊이도 알아 아이들의 믿음 생활에 부모로서 그 역할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에 교회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

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잘 못하면 몰라서 그러려니 하시고 따끔히 일러 가르쳐 주시고, 간혹 잘 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도 믿음의 2세대, 3세대로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릴 적 막연히 그리워했던 그 바람이 이루어졌듯, 여러분께서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저희 가정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끌어주셔서 다시금 제 바람인 ‘세대를 거듭하는 믿음의 가정’ 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하여 이후에는 제가 ‘3세대가 함께 하는 믿음의 가정 이야기’ 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 금은 갑작스럽게 저희 찬양팀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는 있지 않은 특별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청년부가 그렇고, 은혜마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쉐마의 밤이라는 두 달에 한번하는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삼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취지로 이영길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아주 특별한 모임입니다.

쉐마의 밤 예배때 찬양을 인도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찬양팀을 만들겠노라 자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였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면조차 사랑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걸 새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쉐마 찬양팀은 두 달에 한번 있는 30분 남짓한 찬양 시간을 위해 한달간 연습을 합니다. 물론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멤버들도 정말 다양한 부서에 속해 계시고 연령층도 차가 크고... 그래도 한 교회 아니 같

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보듬어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최적의 환경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또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할 때가 종종 있지만... 언제나 은혜로운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해주시고.. 밥도 굶지 않게 해줍니다. ^^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시니... 꼭 누군가가 무언가를 준비해 와주시고 또 정말 열정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도 정말 바쁜 와중에도 나의 시간을 내려 놓고 주님께 헌납하기로 결정한 마음들이 모였기에 가능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쉐마 찬양팀은 여러 귀한 지체들의 마음이 하나되어 모인 주님과 찬양으로 대화하길 원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쉐마 찬양팀은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찬양을 준비합니다. 주위에서 '좀 쉽게 하지' 라던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쉐마 찬양팀은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세상 최고의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최선을 가져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찬양의 힘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모압과 암몬의 군대 가운데,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내려두고 쉐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모든 적의 무리를 섬멸하십니다. 쉐마 찬양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쉐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 역대하 20:20

청년 2부 담당 교역자 허신영 목사 소개

본 교회 청년 2부 담당 교역자로 허신영 목사님이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허신영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풀타임 사역을 하시다가, BU로 수확차 오시게 되었습니다. BU에서 올해 STM을 마치시고, 올 가을부터 박사과정(전공: Practical Theology)을 시작하십니다. 가족으로는

박강희 사모님과 아들, 은석이를 슬하에 두고 계십니다.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니카라과 선교지에서 만난 어린이들



• 니카라과 선교지에서의 미용팀 봉사



• 2007 여름성경학교 모습



• Arsenal Park에서 열린 전교인 체육대회-줄다리기



• 6월 세례식 장면



• 7월 웨마의 밤 - 웨마 초대가정



• 동북부 장로교 여성대회 모습



• 조장로님택에서 열린 2부 찬양대 초대 모임